

Morning Meeting Brief

글로벌전략

G2 정치적 이벤트 개막

- 미국 중간선거(6일), 트럼프의 대중 강경모드 태도의 변화를 일으킬 이벤트
- 중국 국제수입박람회(5~10일), 대외적으로 시장개방 의지를 확고히 알리는 장
- G20 정상회담 전, 미중 정상간 만남 성사시 양국간 갈등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힐라코리아: Acushnet 3Q 실적: 영업이익 컨센서스 +18% 상회하는 호실적 기록

- 힐라코리아의 자회사, Acushnet(GOLF US) 3Q18 실적 공시: 매출액 7% 증가, 영업이익 35% 증가(yoy)하며 양호한 실적 기록
- 전일 컨퍼런스에서 2018년 매출액과 EBITDA 가이드선 기준과 유사한 수준 제시
- Acushnet의 호실적 영향으로 힐라코리아 3분기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 높음

유정현, cindy.yu@daishin.com

[3Q18 Review] GS 리테일: 향후 추가 방향은 H&B 부문 개선 여부가 결정할 듯

- 투자 의견 Marketperform, 목표주가 38,000원 유지
- 3Q18 실적 Review: 편의점 비용 절감과 기타 부문 적자 축소로 영업이익 개선
- 향후 H&B 사업 등 기타 부문 개선 여부가 추가 방향 결정할 듯

유정현, cindy.yu@daishin.com

[3Q18 Review] LG 유플러스: 유무선 외형성장은 고무적

-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8천원 유지. 매출 3.0조원(-0.6% yoy, 0.0% qoq), OP 2.3천억원(+8.3% yoy, -6.5% qoq)
- 요금할인을 상향 영향으로 무선 매출 감소 추세. 하지만, 1Q19부터 매출 반등 전망
- IPTV, 매출 2.5천억원, ARPU 22천원, 역대 최고, Q(가입자)와 P(VOD/홈쇼핑) 모두 상승
- 부채비율 93%, 처음으로 100% 하회. '17년과 동일한 31% 배당성향 유지해도 DPS는 450원(+50원)으로 상향가능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3Q18 Review] 하나투어: 나름대로 선방! 남은 것은 일본 회복

- 투자 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1만원 유지
- 3Q18 연결 매출 2,084억원(+3% yoy), 영업이익 52억원(-42% yoy) 달성. 당사 추정 영업이익 48억원 및 컨센서스 부합
- 여행업 구조적 성장, 일본 정상화 이후 본사 및 자회사 높은 실적 레버리지, 해외 비자센터 추가 운영, 신규 플랫폼 론칭에 따른 FIT시장 진출(1Q19) 등 긍정적 요소들 다수 감안시, 현 주가(19E PER 17배) 투자 의견 매수 유지

김수민, soomin.kim@daishin.com

글로벌 전략

문남중

namjong.moon@daishin.com

주간 투자 전략 / '18. 11월 둘째주

G20 정치적 이벤트 개막

체크 포인트

- G20 통상마찰 간극의 이정표격인 미국 중간선거,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
- 양국간 정치적 득실 확보 여부 중요, 양국 정상간의 만남에 중대한 결정 요인

미국 중간선거(6일), 트럼프의 대중 강경모드 태도의 변화를 일으킬 이벤트

- 오는 6일,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최근 선거에 측 조사(10. 30일,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 83%,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은 86%로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이다.
- 중간선거 후, 처음에는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겠지만 중요한 점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무역분쟁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 예상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면 예산안을 무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다. 2) 반대로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민주당보다 경기부양 의지가 높은 트럼프 정책노선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올해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의 이유가 중간선거 승리라는 정치적 득실을 염두에 둔 측면이 커서, 선거 이후 관심사가 '인프라 투자' 와 '금융권 규제 완화' 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5~10일), 대외적으로 시장개방 의지를 확고히 알리는 장

- 오는 5일부터 개막하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수입'에 방점을 둔 첫 국가급 행사라는 점에 주목한다. 1) 올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각인된 무역 불균형 조장국이라는 불명예를 '자유무역 수호'라는 미명하에 지우려는 목적과 2) 미국과 통상마찰에 시달리는 국가들을 우방으로 확보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립전략을 돌파하고자 한다. 또한, 3)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면서 대외적으로 수입을 통한 대외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수입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유인해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 전, 미중 정상간 만남 성사시 양국간 갈등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

- 미중간 무역분쟁은 11월 양국간 정치적 이벤트 이후에는 소강모드로 들어갈 양상이 크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간선거' 이후 중국과의 통상마찰 카드는 미국 경기고점 논란, 무역분쟁 후폭풍이 미국경제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더 이상 정치적 득실을 위한 유인책이 못될 것이다.
- 이에 따라 트럼프의 관심사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인프라 투자' 와 같은 경기부양 카드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의 분수령은 G20 정상회담 전이 될 것이며, 부분적인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동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Acushnet 3Q18 실적

: 영업이익 컨센서스 +18% 상회하는 호실적 기록

유정현 cindy.yu@daishin.com 이나연 nayeon.lee@daishin.com

2018. 11. 02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60,000**

현재주가(18.11.01) **43,200**

힐라코리아의 자회사, Acushnet(GOLF US) 3Q18 실적 공시: 매출액 7% 증가, 영업이익 35% 증가(yoy)하며 양호한 실적 기록

- 전일 힐라코리아(081660, TP 60,000원)의 자회사인 Acushnet이 3Q18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음. 매출액은 yoy 6.7% 증가한 \$3억 7,043만, 영업이익은 yoy 34.9% 증가한 \$2,587만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였음. 그러나 순이익은 지난 2017년 발생했던 법인세에 대해 조정(transition tax)이 발생하면서 yoy 24% 감소했으나 이는 일회적인 것으로 큰 의미 없음(컨센서스 매출액 \$3억 5,912만, 영업이익 \$2,200만)
- [지역별 매출액] 미국이 신제품 출시 효과로 yoy +11%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한국과 EMEA 지역 모두 yoy +4% 증가, 일본은 yoy +2% 성장하며 양호한 성장 추세가 이어짐
- [품목별 매출액]
 - 1) Titleist 골프공: 매출액 yoy +6.2% 증가. 지난 2분기에 출시된 AVX 프리미엄 골프공 판매 호조로 매출 증가
 - 2) Titleist 골프 클럽: 매출액 yoy +17.4%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 드라이버와 페어웨이가 신규 출시된 TS 모델의 인기로 판매 호조, 또한 올해 1분기에 출시된 고부가가치 제품, 웨지의 판매 증가로 단가 인상 효과 발생
 - 3) Titleist 골프 기어와 Footjoy 매출액은 모두 yoy 1% 감소

전일 컨퍼런스에서 2018년 매출액과 EBITDA 가이드نس 기존과 유사한 수준 제시

- 전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동사는 2018년 실적에 대해 기존 예상대로 순항 중이라고 언급. 미국 시장에서 골프 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이른바 dedicated golfer들의 Titleist의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언급. 새로운 제품 라인업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회사측은 2018년 가이드نس를 매출액을 \$16.2~\$16.3억(yoy +2.1~2.8%)으로, EBITDA의 경우 \$2.27~\$2.33억(yoy +1~4%)으로 기존과 유사한 수준을 제시. 회사가 가이드نس 제시에 기존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판단됨

Acushnet의 호실적 영향으로 힐라코리아 3분기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 높음

- Acushnet의 지분 53.1%를 보유하고 있는 힐라코리아의 Acushnet의 지분 가치는 약 1.1조원에 해당. 힐라코리아의 시가총액은 최근 주가 조정으로 2.3조원까지 하락. Acushnet의 양호한 실적으로 3분기 힐라코리아의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 593억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Acushnet의 3분기 영업이익(원화 기준)이 시장 컨센서스 247억원(\$2,200만) 대비 약 40억원 이상 많은 290억원(\$2,587만)으로 집계되었기 때문. 참고로 지난해 3분기 Acushnet의 원화 기준 영업이익 약 214억원과 비교하면 이번 3분기 동 법인의 영업이익 증액은 +76억원에 달함
- 글로벌 골프 No. 1 브랜드인 Titleist를 보유한 Acushnet의 무난한 실적 흐름과 무엇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국내 실적, 그리고 고성장하고 있는 중국 사업을 고려하면 힐라코리아의 기업 가치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KOSPI 조정과 함께 차익 실현에 따른 동사 주가 조정으로 valuation 매력도 여전히 큰 상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기업 중 가장 저평가 돼 있는 점도 동사의 매우 큰 투자 매력

GS 리테일
(007070)

유정현
cindy101@daishin.com
투자의견

이나연
naveonlee@daishin.com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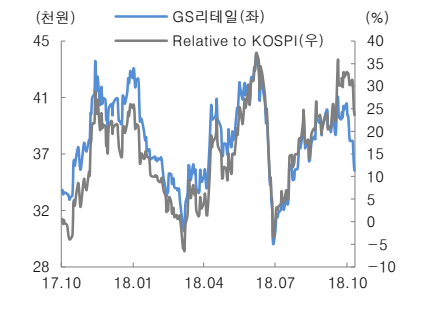
6개월 목표주가
38,000
유지

현재주가
(18.11.01)
35,250
유통업종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024.46
시가총액	2,71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0%
자본금(보통주)	7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3,950원 / 29,7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11억원
외국인지분율	21.88%
주요주주	GS 외 1 인 65.77% Genesis Asset Managers,LLP 5.0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7	8.0	-5.2	5.5
상대수익률	5.5	23.0	17.7	33.3



향후 주가 방향은 H&B 부문
개선 여부가 결정할 듯

투자의견 Marketperform, 목표주가 38,000원 유지

- 투자의견 Marketperform, 목표주가 38,000원 유지. 편익점 슈퍼 사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향후 H&B 사업 등 기타 부문의 개선 여부가 주가 방향 결정할 것으로 전망

3Q18 실적 Review: 편익점 비용 절감과 기타 부문 적자 축소로 영업이익 개선

-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3,254억원(+3%, yoy)과 776억원(+40%, yoy) 기록
- 편익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7,565억원(+2%, yoy), 764억원(+1%, yoy) 기록. 3분기 기록적인 폭염으로 점주 전기료 지원금이 전분기 100억원 대비 40억원 증가한 140억원이 집행 (3분기 점주 지원금 총 약 150억원되었으나, 기존점 성장률이 회복(+3%, 담배 제외 시 +2%)되고 고 비용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1% 증가함. 점주 지원금 제외 시 편익점 영업이익 약 +66% 증가 추정
- 슈퍼사업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090억원(+3%, yoy), 57억원(+138%, yoy) 기록. 슈퍼사업부 구조조정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신선식품 물가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 호텔사업부는 파르나스 임대수익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99억원(+16%, yoy), 140억원(+67, yoy) 기록. 기타 사업부는 할라블라(H&B 부문) 영업적자(-70억원), 해외 신사업 등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전년동기에 반영되었던 세금(약 200억원)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도 -312억원에서 -185억원으로 적자 축소

향후 H&B 사업 등 기타 부문 개선 여부가 주가 방향 결정할 듯

- 편익점 기존점 성장률이 10월은 3분기 대비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파악(+2% 내외)되나 편익점과 슈퍼 등 주력 사업부문에서 큰 폭의 비용 절감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 그러나 올해부터 점포 출점이 지난 3년간 평균 15%(CAGR)에 비해 크게 둔화(+5% 수준)되고, 기존점 성장률의 하향 안정(+2%)으로 이익 증가율이 현재의 valuation을 더 끌어올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 편익점 슈퍼 사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향후 H&B 사업 등 기타 부문의 개선 여부가 주가 방향 결정할 것으로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7	2Q18	직전추정	잠정치	3Q18			4Q18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259	2,199	2,434	2,325	2.9	5.8	2,385	2,136	3.0	-8.2
영업이익	56	56	72	78	39.7	39.2	72	35	12.1	-55.3
순이익	38	44	57	59	55.5	34.6	55	39	159.9	-34.2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7,402	8,267	8,655	9,005	9,411
영업이익	218	166	190	228	237
세전순이익	365	189	212	250	259
총당기순이익	274	115	159	187	194
지배지분순이익	274	118	159	187	194
EPS	3,562	1,535	2,062	2,432	2,520
PER	13.4	26.3	17.1	14.5	14.0
BPS	25,842	26,369	27,831	29,662	31,582
PBR	1.8	1.5	1.3	1.2	1.1
ROE	14.5	5.9	7.6	8.5	8.2
환율민감도(원달러)분석				2019F	2020F
환율 100원 상승시 EPS(주당순이익) 변동율				0.0%(-)	0.0%(-)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GS리테일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LG 유플러스
(032640)

김화재

hojae.kim@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8,000

현재주가

(18.11.01)

16,100

통신서비스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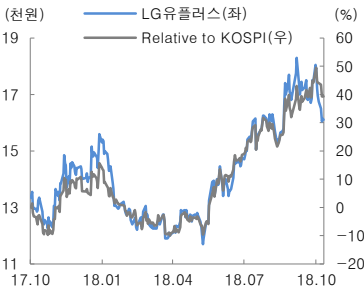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Neutral Green

KOSPI	2024.46
시가총액	7,029십억원
시가총액변동	0.52%
자본금(보통주)	2,57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8,300원 / 11,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49억원
외국인지분율	43.11%
주요주주	LG 외 1 인 36.05% 국민연금 9.6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9	3.9	30.9	24.8
상대수익률	7.5	18.4	62.6	57.6



유무선 외형성장은 고무적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8,000원 유지

- 2018E EPS 1,462원에 PER 12배 적용(통신업종 공통), RIM 기준 적정주가 34천원

※ 주: 1Q18부터 IFRS 15가 적용되나, 과거실적과의 비교를 위해 구 회계기준으로 작성

3Q18 Review: 요금인하 영향은 있었지만, 유무선 외형성장은 고무적

- 매출 3,039억(-0.6% yoy, 0.0% qoq), 영업이익 232억(+8.3% yoy, -6.5% qoq) 달성
- 4Q17 시작된 요금할인을 상향 영향으로 무선 서비스 매출 1.25조원(-4.4% yoy, -0.6% qoq)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감소폭 완화. 1Q19부터는 매출 반등 전망
- 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업계 처음으로 9.0GB 달성. 전체 평균 7.5GB를 크게 상회
- 수익성 높은 휴대폰 가입자 95천명 포함 무선 가입자 순증 294천명, 2Q12 이후 최고
- 마케팅비 5.3천억원(-4.2% yoy, +3.0% qoq).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 SAC 160천원으로 '14년 이후 감소추세이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영향. 매출 대비 22% 수준 유지 중
- IPTV 매출 2.5천억원 ARPU 22천원 역대 최고, Q(가입자)와 P(VOD/홍소핑) 모두 상승
- 부채비율 93%로, 처음으로 100% 하회. '17년과 동일한 31% 배당성향 유지해도 DPS는 450원(+50원)으로 상향가능하고, 재무구조 개선 시 배당성향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에, 34%로 상향시 500원 전망. CATV 인수 등 대규모 M&A가 진행되더라도, 주주환원의 기본 정책은 유지되기 때문에, DPS 450원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7	2Q18	3Q18				4Q18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060	3,039	3,129	3,040	-0.6	0.0	3,030	3,082	-7.4	1.4
영업이익	214	248	232	232	8.3	-6.5	215	230	14.1	-0.9
순이익	143	165	160	157	9.6	-5.2	149	159	16.9	1.3

구분	2016	2017	2018(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7	2018(F)
매출액	11,451	12,279	12,394	12,226	-1.4	12,206	7.2	-0.4
영업이익	746	826	940	955	1.6	850	10.7	15.6
순이익	493	547	621	638	2.7	559	11.1	16.6

자료: LG유플러스, WSEIn,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11,451	12,279	12,226	12,698	13,336
영업이익	746	826	955	1,040	1,138
세전순이익	643	667	864	932	1,025
총당기순이익	493	547	638	689	758
자비지분순이익	493	547	638	689	758
EPS	1,129	1,253	1,462	1,579	1,737
PER	10.1	11.2	11.0	10.2	9.3
BPS	11,054	11,985	13,047	14,176	15,413
PBR	1.0	1.2	1.2	1.1	1.0
ROE	10.6	10.9	11.7	11.6	11.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분 기준으로 산출 / 자료: LG유플러스,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하나투어 (039130)

김수민

soomin.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10,000

유지

현재주가

61,500

(18.11.01)

레저업종

나름대로 선방! 남은 것은 일본 회복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10,000원 유지

- 목표주가 110천원은 12M Forward EPS 3,657원에 Target PER 28배 적용

3Q18 Review: 본사는 우려 대비 선방. 이제는 일본 회복이 관건

- 3Q18 연결 매출 2,084억원(+3% yoy), 영업이익 52억원(-42% yoy) 기록. 당사 추정 영업이익 48억원 및 컨센서스 부합. 별도, 주요 자회사 실적은 향후 공시 통해 조회 가능
- 3Q18 별도 영업이익 74억원(-20% yoy) 추정. 전체 송출객 -6% yoy, PKG -11% yoy 감소했으나, 일본향 송출객 급감(-27% yoy)에 따른 지역 비중 축소(-7%p yoy)로 평균판매단가(ASP) 상승(+13% yoy). 당사 추정 크게 상회. 일본 ASP는 평균 대비 약 57% 수준. 그 외 인건비 등 소폭 증가했으나, 비상경영 체제 돌입 이후 보수적 비용 관리 지속 중
- 면세점 영업손실 28억원(-47% yoy) 추정. 시내점 영업 면적 축소(18.4월) 이후 꾸준히 손실 축소. 공항점은 T1, T2 각각 흑자. 아시아나항공 카운터 이동(T1, 동편)이 추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 다만 잇따른 자연재해로 본사 송객 의존도가 높은 하나투어재팬 여행 및 면세 사업이 크게 타격 받으면서, 기타 자회사 합산 영업이익 약 6억원(-89%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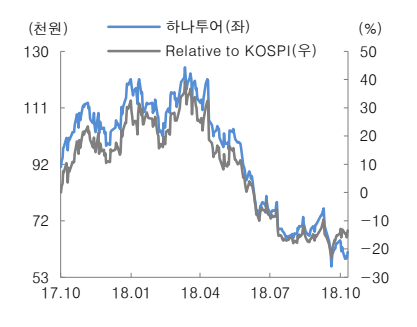
18.10월 송출객 점진 및 향후 전망

- 18.10월 전체 송출객 46만명(-1% yoy), PKG 29만명(+3% yoy), TKT 17만명(-2% yoy)
- 지역별(YoY). 동남아 +6%, 중국 +38%, 일본 -9%, 유럽 +20%, 남태 +0%, 미주 -14%
- 향후 예약률. 18.11월 -9.5%(+8%p), 12월 -6.3%(+11%p), 19.1월 -12.4%
- 여행업의 구조적 성장, 일본 관광업 정상화 이후 본사 및 자회사의 높은 실적 레버리지, 해외 비자센터 추가 운영(18.8월 중국(+3), 베트남(+2)), 신규 플랫폼 론칭에 따른 FIT 시장 진출(1Q19) 등 긍정적 요소들 다수 감안시, 현 주가(19E PER 17배) 투자의견 매수 유지
- 다만 지난 4Q17 베이스는 여전히 높고(PKG 송출객 +26% yoy, ASP +4% yoy), 아직까지 일본 수요의 뚜렷한 회복세 보이지 않아 4Q18E 실적 불확실성 남아있는 상황. 본격적인 영업 기저 발동되는 19.2월 예약률 확인 및 실적 가능성과 함께 유의미한 반등 전망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Sky Blue

KOSPI	2024.46
시가총액	71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24,500원 / 56,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3억원
외국인지분율	13.19%
주요주주	박상환 외 25 인 14.78% 국민연금 10.4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9.6	-21.8	-48.3	-36.1
상대수익률	-7.1	-10.8	-35.8	-19.3



(단위: 십억원 %)

구분	3Q17	2Q18	3Q18				4Q18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67	197	174	208	24.9	5.9	193	204	12.3	-2.2
영업이익	10	5	5	5	-46.9	9.3	5	6	-60.8	18.6
순이익	4	2	2	4	5.9	134.3	4	3	-61.4	-41.0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596	682	838	934	1,031
영업이익	21	41	28	56	69
세전순이익	24	38	35	60	73
총당기순이익	8	13	19	45	54
자배지분순이익	8	13	15	42	52
EPS	692	1,116	1,316	3,657	4,454
PER	95.6	92.3	46.7	16.8	13.8
BPS	16,312	17,628	17,514	20,219	23,529
PBR	4.1	5.8	3.5	3.0	2.6
ROE	4.2	6.6	7.5	19.4	20.4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 자료: 하나투어,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Strategy 본부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 ✓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